

이재명 지원 ‘성공포럼’ 출범... “공정은 성장의 핵심가치”

현역 국회의원 34명 참여
여의도서 창립식·기념 토론회
민형배·김병욱 의원 공동대표
기본소득 등 8개 정책 생산 주력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를 지원하는 현역 국회의원 모임 ‘성공과 공정 포
럼’(성공포럼)이 20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성장의 결과를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절박
한 요청이다’고 강조했다.
성공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중소
기업중앙회에서 창립식 및 기념 토론회를 했다. 성
공포럼은 ‘성장’과 ‘공정’ 두 가지 가치를 목표로 토
론 및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당 내 이재명계 의원들
이 주축이 돼 발족한 정책 포럼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가 ‘선순환 지속성장
체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포용적 대전환과 정의로운 혁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패널 토론자로 김호기 연세대학
교수, 윤대식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교 교
수,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진걸 민생
경제연구소 소장, 성한용 한겨레신문사 논설위원
등이 나섰다.
민형배(광주 광산을)의원과 김병욱(재선·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이 공동대표를, 5선의 안민석 의
원과 4선의 정성호 의원이 고문, 초선의 홍정민 의

원은 연구간사를 맡았다.
또 전남 주철현(여수시갑)·서삼석(영암무안신
안)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승원·김영진·김윤덕·
김한정·문정복·박성준·박상혁·서영석·송재호·양이
원영·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동작)·이수진
(비례)·이원택·임오경·임종성·전용기·정필모·정일
영·조정식·최기상·최중운·최혜영·황은하 의원 등
총 현역 의원 34명이 정회원으로 참여했다.
이 지사는 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공정은 성장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개념”이라면서 “공정은 역사를 통틀어 언
제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가치”라고 말했다.
이날 발족한 성공포럼은 8가지 키워드로 토론과
정책 생산에 주력한다. 이 지사가 선정한 기본소득
·주택·금융(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포함해, 지속가
능 사회, 반도체 산업 미래, 글로벌 플랫폼 기업 공
정화, 첨단 자동차 산업 미래, 부동산 대책, 가상자
산 제도화 방향, 데이터 경제와 한국 자본시장 미래
등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에 올린 글에서 “소수 기록관 결과를 불특정 다수
에게 DM 발송”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정은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가장 중
요한 공동체의 가치였다”며 “공정성이 담보된 사회
는 흥했고 공정성이 훼손된 사회는 위기를 겪거나
무너졌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더 많은 자
본,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월등한 노동력, 안정적
인 인프라를 가졌음에도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것은 불평등과 불공정, 심각한 격차 때문”이라고 지
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출범식’에서 민형배, 김병욱 공동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문제, 무주택자 목소리 반영이 최우선 절박하고 치열하게 개혁 의지 갖고 가야 한다”

민주 송영길 대표 3선 의원 간담회
부동산 엇박자 등에 쓴소리 쏟아내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에게 당
운영 방안과 부동산 등 정책에 대해 제안과 쓴소리
를 쏟아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3선 의원들과
1시간 30분 가량 간담회를 했다. 이 간담회에 김경
협·김민석·남인순·도종환·박원주·박홍근·서영교·
유기홍·윤관석·유호석·이학영·전혜숙·정청래·홍익
표 의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전체 3선(국무위원 3
인 제외 22명)의 절반 이상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 등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
나 “여러 분야에서 송 대표에게 충언과 제안을 했
다”며 의원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주택자, 실수요자 순서
로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인데 지금
은 순서가 뒤죽박죽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
다”고 전했다. 세계 완화 논의를 겨냥한 것이다.
또 “재보선 패인은 집값 급등에 따른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무주택자들의 분노로, 중부세 때문이
아니다”라며 “중부세는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이어 “말로만 민생이

아니냐, 현장으로 가자”, “부동산과 백신민 민생이
아니다”라면서 노동단체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는 의견도 여러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 요구와 당원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민생과 개혁 중 무엇을 우
선해야 한다는 건 말하지 말고, 둘은 한 몸(이라고
해야한다)”이라며 “관리당원과 지지자들의 개혁 요
구 사항을 잘 듣고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
협 의원은 “절박하고 치열하게 개혁 의지를 갖고 가
야 한다”며 “특히 가짜뉴스 방지에 치열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문자폭탄 논란이
너무 대두되었는데, 당원 청원제도 도입 등 당원 의
견 수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근 송 대표의 발언 논란을 ‘리스크’
라고 지적한 보도를 거론하며 송 대표에 “발언할 때
원고에 기반해 신중을 기하라”고 조언도 했다고 참
석자들이 전했다. 이 밖에도 “대선 경선이 격화될
수 있으니 대선기획단을 조기에 구성하자”는 건의
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 대표는 간담회에서 내부 단합을 강조하
며, “부동산 문제를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만, 정책의
총에서 하나의 방침이 결정되면 뒷받침 하겠다”고 말
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엇박자’ 지적을 의
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현
지 관계자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알링턴 묘지 헌화로 방미일정 시작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0
일 오전(한국시간 20일 밤) 워싱턴DC 인근 알링
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
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의 워싱턴DC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지
만,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는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곳의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참배할 예
정이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참전용사 및 가족 약
40만명이 잠들어 있는 미국 최대 국립묘지 중 하나

로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참배하는 곳이
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을 포함한 미국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한미
관계 발전 방안을 비롯해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
해 의견을 교환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전용
기편으로 워싱턴DC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오
는 21일(한국시간 22일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
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 두근두근 낭만여행
힐링영광 ”
영광군 YEONGGWANG-GUN